Monday, Oct 25, 2021 (2021-42 호)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동향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POLL)-연준, 2023 년에야 금리 인상할 듯..지속적 고물가 가능성은 우려
  - ◇ (초점)-데드라인 와도 리보연계 달러 IRS 송출중단 무시..업계 "권고사항일뿐"
  - ◇ (초점)-소규모 통안 3 년 입찰도 미달..한은 '결자해지' 단순매입 기대 어려운 이유
  - ◇ (칼럼)-요란한 물가 상승에 외환당국도 시험대에..강력한 저지선 구축하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진행 중인 공산당 선전 영화 촬영 장면이 누길을 끌었다. (로이터/토머스 피터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0월22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77.1	0.5%	-7.7%	+6.5%
100엔 대비	1,037.5	-0.3%	1.3%	+1.1%
유로 대비	1,371.4	0.0%	-3.3%	-2.3%
위안 대비	184.38	-0.4%	-9.8%	-0.3%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코스피	3,006.16	-0.3%	4.6%	+30.8%
코스닥	995.07	0.5%	2.8%	+44.6%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3Y	1.889%	9.4bp	91.3bp	-38.4bp
국고채 5Y	2.203%	10.5bp	86.8bp	-14.5bp
국고채10Y	2.411%	5.5bp	69.8bp	+3.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유가(WTI)	83.76	1.8%	72.6%	-20.5%
금(현물)	1,792.48	1.4%	-5.5%	+25.0%
TR상품지수	3,267.26	-0.4%	21.9%	+7.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유로	1.1647	0.4%	-4.7%	+8.9%
엔	113.46	0.7%	-9.0%	+5.2%
위안	6.3920	0.8%	2.1%	+6.7%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5,677.02	1.1%	16.6%	+7.2%
나스닥	15,090.20	1.3%	17.1%	+43.6%
S&P500	4,544.90	1.6%	21.0%	+16.3%
MSCI APxJP	660.57	1.6%	-0.2%	+19.8%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미국채 2Y	0.460%	6.5bp	33.9bp	-144.0bp
미국채 10Y	1.638%	6.4bp	72.6bp	-99.8bp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한국 5Y	19.1bp	-0.8bp	-2.9bp	+0.1bp
일본 5Y	18.6bp	-0.3bp	3.6bp	-4.5bp
중국 5Y	46.6bp	-2.8bp	18.6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10 월 25 일(월)>
- 국회 본회의, 정부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
- 기재부, 부총리 코로나 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16:00)

<26 일(화)>
- 한은, 3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08: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1 차관 브리핑(13:30)
- 금융위・금감원, 가계부채 관리방안(10:30)
- 기재부, 한-아시아개발은행 백신·보건협력 의향서 체결(11:00)
- 기재부, 확대간부회의(15:00)
- 기재부, 1 차관 KTB 국제 컨퍼런스(15:00)

<27 일(수)>
- 금감원, 9 월중 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
- 한은, 10 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06:00)
- 기재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통계청, 8 월 인구동향 및 9 월 국내인구이동 (12:00)

<28 일(목)>
- 금융위, 위원장 은행업계 간담회(10:30)
- 한은,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방향(12:00)
- 한은, 9 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 기재부, 11 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0 월 발행실적(17:00)

<29 일(금)>
- 한은, 10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한은,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개통(06:00)
- 통계청, 9 월 산업활동동향(08:00)
- 한은, 9 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10 월 25 일(월)>
- 미국 9 월 전미활동지수 (21:30)
- 미국 10 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23:30)

<26 일(화)>
- 미국 9 월 건축허가 (21:00)
-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10 월 서비스업 경기 전망 서베이 발표 (21:30)
- 미국 8 월 주택가격 (22:00)
- 미국 10 월 소비자신뢰지수 (23:00)
- 미국 9 월 신규주택 판매 (2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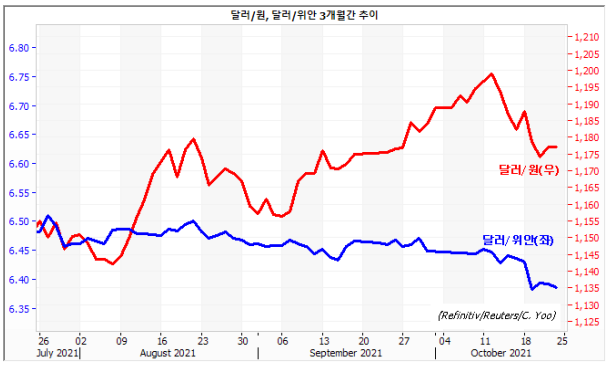
<27 일(수)>
- BOJ 통화정책회의 (~28 일)
- 중국 9 월 산업이익 (10:30)
- 유로존 9 월 총 유동성(M3) 증가율・가계대출 (17: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9 월 내구재주문・도소매 재고 (21:30)
- 캐나다은행, 금리결정 발표 (23:00)・기자회견 (자정)

<28 일(목)>
- 일본 9 월 소매판매 (08:50)
- BOJ 금리결정 발표
- 유로존 10 월 경기체감지수・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18:00)
- ECB 금리결정 발표 (20:45)・기자회견 (21:30)
- 미국 3 분기 GDP 잠정치 (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9 월 잠정주택지수 (23:00)
- 미국 10 월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자정)

<29 일(금)>
- 일본 10 월 도쿄 CPI (08:30)
- 일본 9 월 실업률 (08:30)
- 일본 9 월 산업생산 잠정치 (08:50)
- 일본 9 월 건축주문・주택착공 (14:00)
- 유로존 10 월 CPI (18:00)
- 유로존 3 분기 GDP 잠정치 (18:00)
- 미국 9 월 개인소득・근원 PCE 물가지수 (21:30)
- 미국 3 분기 고용비용 (21:30)
- 미국 10 월 시카고 PMI (22:45)
- 미국 10 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최종치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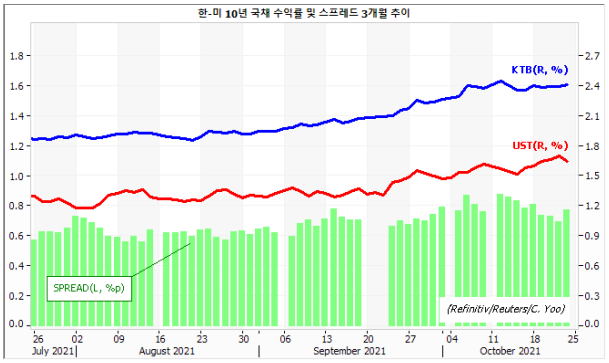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위・아래 보폭을 키웠던 달러/원 환율은 국내외 성장과 물가 지표를 확인하면서 움직이려는 시도도 하겠지만, 주로 월말 수급에 영향받으며 박스권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70-1190 원이다.
- 전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략을 채택하는 나라가 늘면서 투자 심리는 안정되는 분위기다. 공급망 충격에 제조업 지표는 부정적이지만, 서비스업 지표 개선 기대는 크다.
- 국내에서도 지난 23 일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의 70%를 넘었다. 이에 대한 시장 평가가 이뤄진다면 현재의 높은 백신 접종률은 원화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
- 이번 주는 미국과 한국의 3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 그리고 미국의 9 월 근원 PCE 물가지수 결과가 주목된다.
- 이번 달 환율이 급등락하면서 시장 포지션은 대체로 가벼워졌을 것이다. 그 결과 수급에 따른 환율 반응폭은 다시 커질 수 있다.
- 그렇다면 수급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 당장 이번 주는 월말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새로운 변수가 급부상하지 않는 한 팽팽한 수급 여건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이르다.
- 그렇다면 환율은 일방적인 방향성 거래에서는 한발 물러설 수 있겠지만, 충분히 저점을 낮출지에 대한 의구심은 이래저래 환율 움직임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금리 상승 강도가 지난 10 여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이다. 약세장이 두 달간 이어지면서 다치지 않은 곳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 국고채 3 년물 금리가 1.4%에서 1.9%까지 올라오는 동안 어느 기관이든 어느 시점부터는 매수로 접근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깨진 채로 반등만 기다리고 있다.
- "진짜 끝났겠지" 하며 매수를 하면 어김없이 외국인의 매도가 쏟아진다. 외국인의 3 년 선물 누적 순매도가 늘면서 예측이 어렵게 됐다.
- 장 중 반등 시도를 했다 결국 밀리는 패턴이 너무 오래 반복되면서 반등 강도도 미진하다.
- 테이퍼링 발표가 확실시되는 11 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가시권에 접어든 상황이라 더 어렵기도 하다.
- 결국 금리 상단을 봤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데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시선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 정책당국이 금리 상단에 대한 힌트라도 주면 이걸 핑계로 함께 힘을 내 반등시도를 해보겠다는 복안일 것이다. 하지만 한은은 '통화정책 시그널의 혼란'을 이유로 시장 개입에 부정적이다.
- 결국 기재부에 공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 26 일 국채 컨퍼런스에서 과연 의미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냐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28 일 발표되는 11 월 국고채 발행 계획도 관건이다.
- 한은은 26 일 3 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한다. 기저효과가 줄면서 성장률 상승세가 다소 둔화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27 일 한은은 10 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BOK 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요 물가 동인 점검' 자료를 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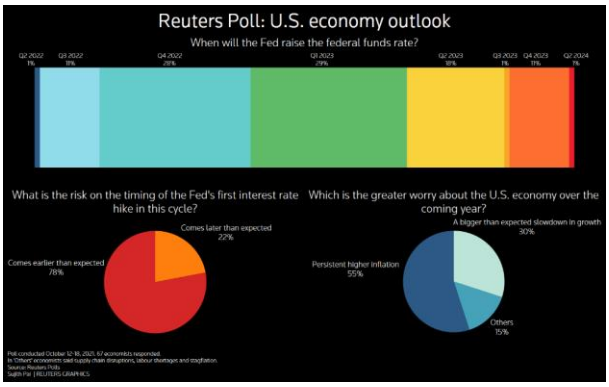
(POLL)-연준, 2023 년에야 금리 인상할 듯..지속적 고물가 가능성은 우려

벵갈루루, 10 월 20 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는 2023 년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로이터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 다수가 전망했다.

연준 위원 절반은 지난달 정책회의에서 내년 금리 인상을 점쳤지만, 이달 12~18 일 동안 진행된 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좀 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 67 명 중 40 명은 2023 년이나 그 이후 주요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현재의 0~0.25%에서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대부분은 2023 년 1 분기 전후를 예상했다.

나머지 27 명은 내년 말까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응답자 37 명 중 29 명은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리스크는 예상보다 빨리 이뤄지는 경우라고 밝혔다.

ING 의 제임스 나이틀리 수석 국제 이코노미스트는 "공급망 문제가 (해결될지) 의심되고 노동시장 부족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에, 인플레이션은 2022 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9 월과 12 월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질문에 응답한 이코노미스트 40 명 중 22 명은 향후 1 년간 미국 경제의 우려사항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이라고 답했고, 30%는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더 크게 둔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내년 하반기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으나, 내년 말까지는 연준의 목표치를 계속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연율 기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 분기 3.8%로, 2 분의 6.7%보다 둔화된 후 4 분기에 다시 5.0%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9 월 조사에서 3 분기와 4 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4%와 5.1%로 제시된 바 있다.

미국 경제 성장률 평균 전망치는 내년 4.0%, 2023 년 2.5%, 2024 년 2.2%로 제시됐다. 지난 9 월 조사에서는 내년 4.2%, 2023 년 2.3%로 예상됐으며, 당시 2024 년 전망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한편 연준이 인플레이션 안정과 최대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은 최소 2023 년 하반기까지 3.6%~4.7% 사이를 맴돌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률이 판데믹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리라 예상한 이코노미스트는 소수였다.

(초점)-데드라인 와도 리보연계 달러 IRS 송출중단 무시..업계 "CFTC 권고사항일뿐"

서울, 10 월 22 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피할 수 없다면 무시하라"라고 했던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2 일부터 리보 연계 달러 이자율스왑(IRS) 금리의 스크린 송출을 제한하도록 권고했지만,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중개사들이 리보를 기반으로 한 달러 IRS 금리의 스크린 송출을 중단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융 데이터 정보 업체들도 기존 업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꿈쩍 않는 시장

CFTC 는 지난 6 월 발표를 통해 7 월 26 일부터 파생상품 거래 시 리보를 지표금리로 사용하지 말 것과 중개사들이 오는 10 월 22 일부터 리보를 기반으

로 한 달러 IRS 금리를 인터뱅크 딜러들에게 송출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시장 참가자들이 리보 금리 대신 SOFR(국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이었다.

이같은 CTFC 의 권고 내용이 알려진 이후 국내 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일었다. 아시아 지역의 SOFR 활용 거래가 미진한 상황에서 당장 거래 때 참조할 리보 기반 달러 IRS 금리 없이 리보와 SOFR 의 스프레드를 기반으로 가격을 산출하는 데 따른 부담 때문이었다.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CFTC 가 제시했던 데드라인이 다가왔지만 시장에선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A 은행 운용팀장은 "리스크 부서에서 걱정을 많이 해서 오늘 리보 연계 달러 IRS 거래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고 스크린도 그대로였다"라며 "뉴욕 장 기준으로 오늘 저녁부터 막힐까 하는 의문도 있지만, 호주 시장도 22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안이 없다"..SOFR 전환 작업은 예정대로

스왑 중개사들도 글로벌 본사에서 별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관계로 기존 업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스왑 중개사의 한 관계자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이게 문제가 됐다면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올 텐데 그런 게 없었다"며 "현재 시점에는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중개사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만큼 금융 데이터 업체들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 데이터 업체의 한 관계자는 "만약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중개사들로부터 입장을 전달받았을 텐데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없었다"며 "중개사 쪽에서 아무런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우리는 기존에 송출하던 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참가자들은 당장 분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CFTC 의 권고조치를 근거로 거래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는 조치를 스스로 취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B 은행 운용팀장은 "일단 CFTC 가 대안 없이 폭탄을 던졌는데, 시장은 방법이 없으니 결국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CFTC 도 리보금리에서 SOFR 로 가는 걸 빨리 준비하라는 의미로 권고한 것이라고 본다면 시장 참가자들이 혼란을 예상하고 굳이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의 A 은행 운용팀장은 "지금 다들 내 코가 석자라 리보금리 전환에 신경 쓸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SOFR 로의 전환 준비는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점)-소규모 통안 3 년 입찰도 미달..한은 '결자해지' 단순매입 기대 어려운 이유

서울, 10 월 20 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채권시장이 통안채 3 년물 1 조 3 천억원 발행 물량 소화도 힘겨워할 정도로 또 한 번 흔들리면서 한국은행의 국고채 단순매입 여부가 다시 시장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은이 이전에도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때마다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섰던 만큼 이번에도 최소한 시장금리 상단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11 월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하고 시장에 강력한 통화정책 정상화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 한은 시장운영팀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분명한 상황이다.

▲통안채 3 년물 입찰 부진에 또 흔들린 채권시장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진행된 통안채 3 년물 입찰에서 8500 억원이 1.930%에 낙찰됐다. 당초 예정했던 1 조 3000 억원을 크게 하회해 응찰(1 조 1100 억)이 이뤄졌고 낙찰수익률은 전날 민평보다 8bp 나 높았다.

이날 통안채 3 년물 입찰의 부진은 시장의 매수 기관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며 채권 가격 낙폭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와 통안채

3 년물 입찰 부진 여파로 이날 오전 국고채 3 년물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1.90%를 상회했다.

이날 통안채 3 년물 예정 물량이 1 조 3000 억원에 불과했는데도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앞으로도 수급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지난 9 월에 국고채 3 년물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 물량이 소화된 것을 감안하면 급격한 위상 변화다.

통안채 3 년물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고채 2 년물 발행을 결정한 데 따른 대응 차원에서 검토됐다. 기재부가 국고채 2 년물을 발행하면 통안채 2 년물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고채 금리에도 다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게 한은의 판단이었다.

한은은 통안채 발행량 중 일부분을 3 년물로 분산시키면 수익률 곡선의 왜곡 없이 국고채와 통안채의 공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고 결국 올해 9 월 처음으로 발행을 시도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다. 지난 9 월부터 50 여일 동안 시장금리가 상승해 오면서 기관들의 매수 여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10 월 금통위 회의 직후 이주열 한은 총재가 11 월에 이어 내년 초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황이라 저가매수세 유입도 지지부진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고채 3 년물과 통안채 3 년물의 병행 발행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것이다. 시장 심리가 추가로 무너질 경우 국고채 대비 통안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며 불안감이 더 확대될 수도 있다고 운용역들은 지적한다. 한은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최소한의 시장 안정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A 증권사 채권 딜러는 "오늘 밀린 건 외국인 선물 매도와 통안채 3 년물 입찰 영향이 크다"며 "왜 굳이 이런 시점에 통안채 3 년물을 발행했어야 했는지 아쉽다"라고 말했다.

B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지금 두 달 가까이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모두가 과도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운용역들의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있다"며 "시장 금리 레인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국이 최소한의 안정화 조치만 해줘도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너무 빨리 오르는 건 한은 입장에서도 결코 우호적인 결과는 아니다"라며 "한은이 시장금리 상승을 너무 오래 방치하고 있는데, 오늘 통안채 입찰 결과를 통해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결자해지" VS "통화정책 시그널에 혼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 일 금통위 기자간담회 당시 "시장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이전에도 그랬듯이 국고채 단순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이 경기와 물가, 대외 요인을 복합 반영한 것으로 절대금리가 아닌 기준금리 대비 스프레드로 봤을 때 연중 평균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금리 변동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금리 정상화에 무게를 더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한은 실무진 역시 시장 개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금통위가 11 월 기준금리 인상 의사를 이미 밝힌 상황에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한 한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부담감도 읽힌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오늘 통안채 3 년물 낙찰금리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유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동성 조절을 다른 수단으로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안채 3 년물의 경우 시장 상황을 감안해 무리하게 발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고채 단순매입과 관련해선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다소 과잉 반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은 역시 국고채 단순매입을 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며 "11 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100% 반영하고 있는 현시점에 한은이 시장금리 안정을 위해 개입한다는 사실이 참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뛰면 기재부가 가장 부담이 클 것이고 바이백 확대 등 여력도 충분해 보인다"라며 " 다만 기재부가 작년 말이나 올해 초에 비해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칼럼)-요란한 물가 상승에 외환당국도 시험대에.. 강력한 저지선 구축하나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10 월 19 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전 세계 곳곳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원화 약세까지 더해져 국내 물가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만큼 외환 당국의 향후 대응도 어느 때보다 주목된다.

코로나 19 판데믹 장기화에 따른 구인난 가중, 운송 차질로 인한 운송비 급등 등 전례 없는 공급망 병목 현상과 이상 기후와 친환경 정책 전환에 따른 에너지 대란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가격은 올해 폭등하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 경질유(WTI)는 지난 주말까지 8 주 연속 올라 7 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고, 천연가스와 비철금속 가격도 파죽지세다. 톰슨로이터/코어커머디티 CRB 지수는 올해 들어 벌써 40%대 급등했다.

이처럼 불붙은 원자재 가격 탓에 국내 물가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 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나 급등해 14 년 여만의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이에 10 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는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3%대 물가상승률은 2012 년 2 월 이후 처음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물가 관리를 특별 지시했다. 하지만, 전력난에 따른 생산 규제와 동절기라는 계절적 요인, 글로벌 공급망 훼손과 공급 충격 등으로 물가 상승 장기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어떤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물가 당국 뿐 아니라 외환 당국도 중요한 시험대에 서게 됐다.

▲ 변동성 관리는 맞는데..

최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은 특정한 레벨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해 시장 쏠림을 막는 데 중점을 두어 왔다.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를 통해 개입 내역 공개를 직접 압박받기도 했던 외환 당국은 2018 년 5 월 시장 안정조치 내역을 밝히기로 했고, 그 결과 과거보다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그렇지만, 원화에 있어 당국 변수는 상수로 인식될 만큼 시장 내 당국 입김은 여전히 막강하다.

일례로 외환 당국이 발표하는 분기별 외환 순거래액 결과가 보합일 경우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 개입이 양방향 균형을 맞춘 것으로 결론짓지 개입이 없었다고 보진 않는다.

이렇듯 시장 참가자들은 당국의 세밀한 변동성 관리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환율 상승과 하락 변동성 관리에 대한 당국의 대응 강도가 다르다는 인식은 늘 있어 왔다.

작년 외환 당국의 개입 내역을 한번 들여다보자.

작년 1 분기 외환 당국은 60 억달러에 달하는 달러 물량을 시장에 풀었다. 당시는 코로나 19 공포로 환율이 1300 원 근처까지 폭등했던 때다. 반면 원화가 강세 일변도 흐름을 보였던 작년 4 분기 당국은 115 억달러를 순매수했다.

올해 원화가 상대적으로 절하 폭을 키운 데는 강달러라는 대외 환경과 수요 우위로 형성된 국내 수급이 핵심이지만, 번번이 환율 급락을 막아서며 환율 하락 변동성 관리를 은밀하게 해 온 외환 당국의 오판 때문이었다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조심스레 제기됐다.

당국 입장에서는 시장의 억측이라고 하겠지만, 시장은 당국 스탠스를 그렇게 받아들여왔다.

▲ 레드라인 명확히 할까

그러던 중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이후 물가 급등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다. 한국 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얽힌 대외 악재 탓이 크지만, 가계에 직격탄인 물가 상승에 대한 비난을 피해 가긴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외환 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환율 상승 변동성 확대에 대한 당국 스탠스가 환율 하락 때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국은 역외 오버슈팅 차단을 위해 미리 경고장을 날렸고, 실제로 꽤 많은 물량을 쏟아내며 원화의 추가 약세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 것으로 추정됐다. 그 결과 달러/원 1200 원 저항 벽은 한층 강해졌다.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 가속화, 그리고 달러 수요를 유발하는 역내 수급 등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원화 약세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강하게 작동한다면 일방적인 원화 약세에 제동은 걸 수 있다.

최근 원화 약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국 개입 효과를 극대화할 만한 과도한 쏠림은 없었고, 당국도 시장 쏠림을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렇다 보니 당국은 수급 불균형 완화에 주력하며 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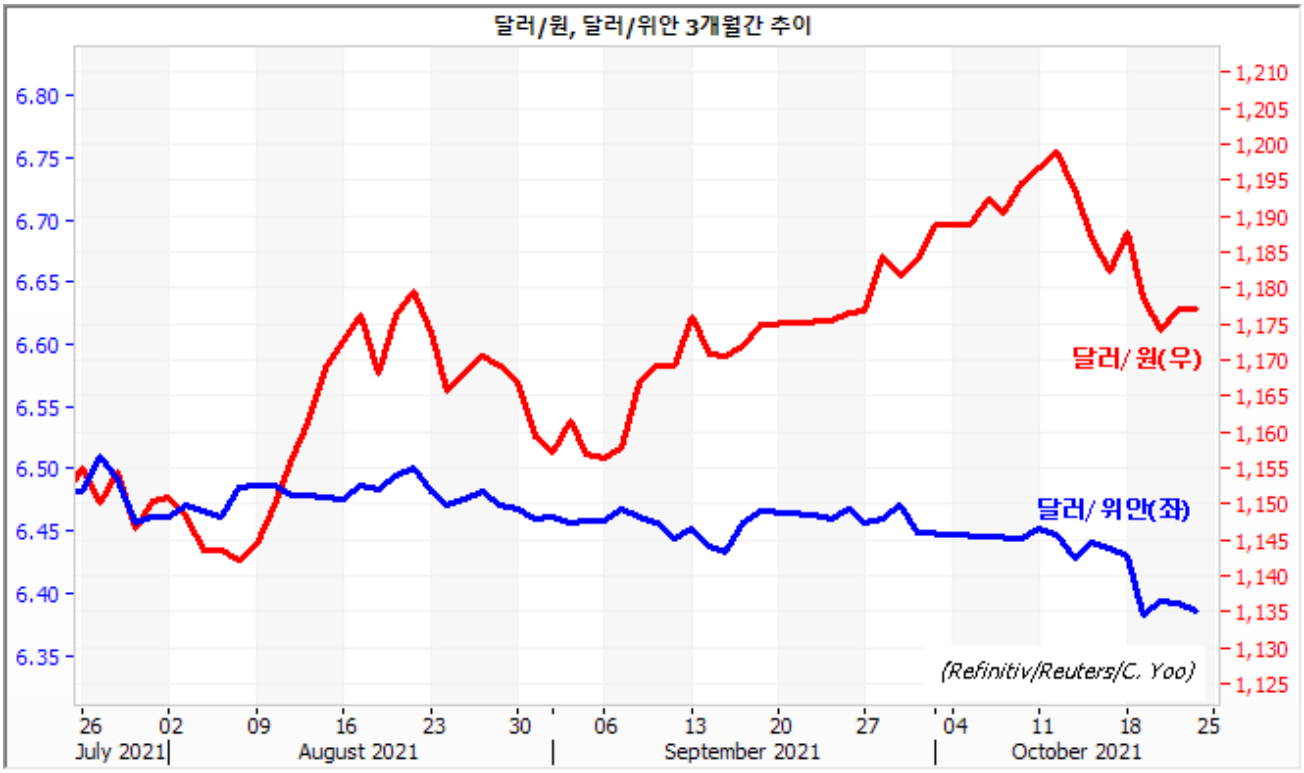
하지만, 향후 원화 약세가 역외 등 시장 포지션에 의해 가속화될 경우 당국은 환율 급락을 유도할 수준의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할 여지가 커 보인다.

적어도 원화 약세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더해지는 것을 외환당국 입장에서는 사전에 차단하고 싶을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 환율이 오를 때와는 달리 당국의 명확한 저지선이 마련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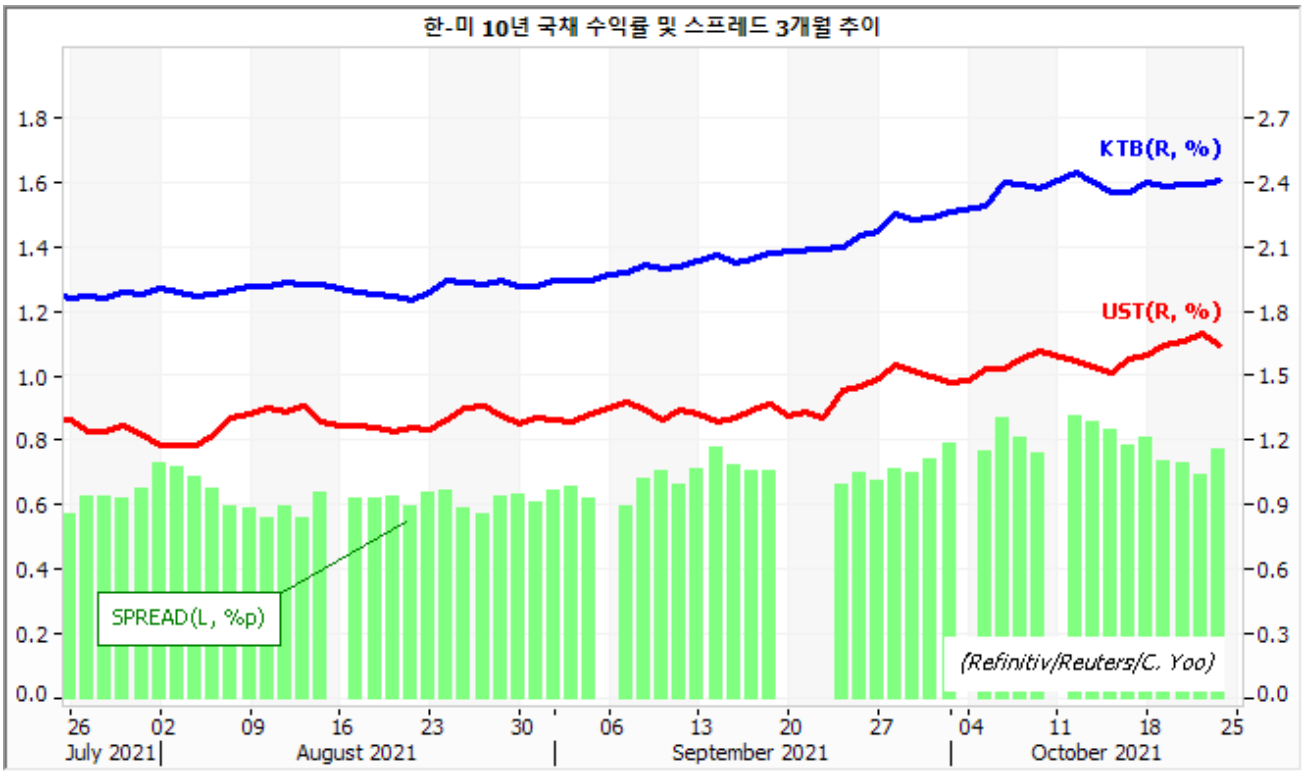
당국이 양방향 변동성 완화라는 외환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대외 물가 상승에 환율마저 상승 기조에 놓인 '비상 상황'을 맞아 변동성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할지 지켜볼 시점이다.

 # PHOT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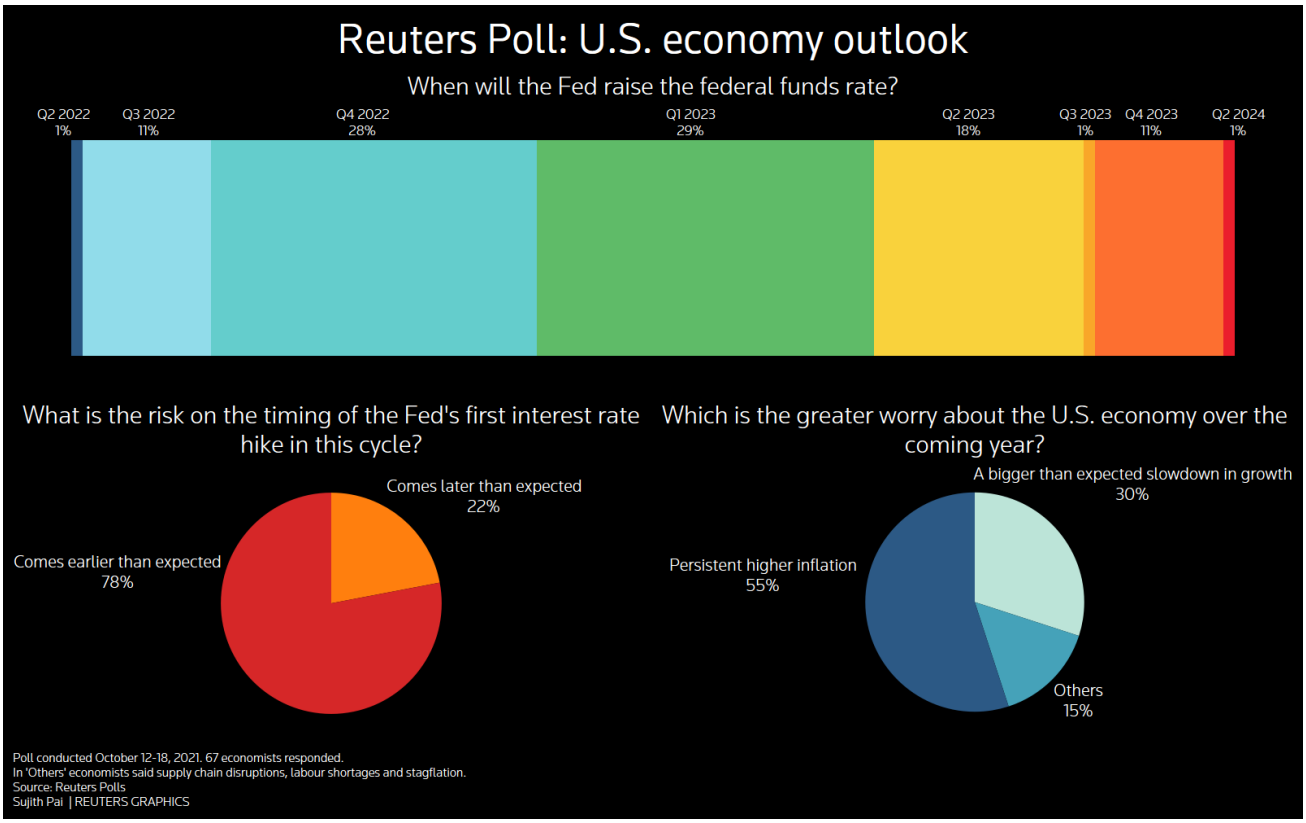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